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43

#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Stress-

최정민*, 김신열**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Min Choi(mobile1225@daum.net)*, Shin-Yeol Kim(sykim@jbnu.ac.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구조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소득불평등 인식,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SPSS ver. 18.0을 이용 기초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소득불평등 | 경제적 스트레스 | 자살생각 |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 adul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regression (tolerance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with the help of SPSS ver. 18.0. using data of 532 elderlies over 65 years old who live in Jeollanam-do. The main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ult shows the significant medicating effect of econo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 keyword : | Income Inequality | Economic Stress | Suicidal Ideation | Mediating Effect |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장수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빠른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미흡할 경우 다양한 사회 병리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접수일자 : 2014년 09월 30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18일
교신저자 : 김신열, e-mail : sykim@jbnu.ac.kr

발생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OECD(2014: 1)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약 70명이고, 또한 1990년과 2010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현 시점에서 노인자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자살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자살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의 자살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과 범부처가 참여하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16]. 또한 학계에서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인자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자살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인자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노인자살 현황분석[10][16][24][42][51][61] 등과 같이 노인자살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방향은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4][5][8][19][57][68][69]. 특히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실천적·정책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주요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현시점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적 취약성 문제이다. OECD(2013: 164)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7.0%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인 12.8%에 비해 약 3.67배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다[53]. 실제 한국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이 노인자살을 유발하는 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World News(2012)가 보도한 바 있다[67].

한편 경제적 취약성 개념의 대표적인 측정변인은 빈곤과 소득불평등이다[23][46][66]. 이중 현 상황에서 노인자살에 이르는 원인조건으로 소득불평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은 생필품 등의 부족상태인 절대적 빈곤과 타인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아울러는 개념이기 때문이다[2][35]. 즉 빈곤보다는 소득불평등이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취약성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17][22][37][49]에서도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의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 관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시지표인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행위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거시지표인 소득불평등과 개인의 행위인 자살 간 관계를 연결해 주는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하지만 이소정(2010: 5)은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주목하였다[19].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은 아노미 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을 통해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노미 이론을 제시한 Merton은 경제적 성공이라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차별적 분배 즉,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자살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Merton의 아노미 이론을 확장시킨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단순히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개인의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44][48],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탈행위를 촉발시킨다고 설명하였다[25][26].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가 갖는 또 다른 한계는 자살변인을 자살률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변인은 주로 OECD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살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미치는 경향성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하지만 OECD나 통계청 데이터의 한계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일부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살변인은 사후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OECD나 통계청은 대중들에게 2~3년의 기간이 지나고 공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변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선행요인인 자살생각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지역과 현 시점에서 소득불평등이 개인 행위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지표인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행위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한계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지역과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선행요인인 자살생각 변인에 통한 간접적인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실천적·정책적 개입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빈곤개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지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수렴하는 소득불평등은 세금을 활용하거나,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증세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친복지 진영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노미이론과 일반긴장이론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그림 1]과 같이, “아노미의 발생조건”과 “아노미 조건 하에서 개인의 적응방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즉, 모든 사회는 문화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라는 매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승인된 목표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성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때, 개인의 비행 문제가 발생하고, Merton은 이를 아노미라고 주장하였다[38][60]. 그리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 따라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개인의 적응방식은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60]. 이중 아노미에 대한 적응방식 중 도피형은 노인의 자살과 가장 관련 있는 개념이다. 기존 선행연구[64][14]에서도 자살을 ‘도피’의 극단적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과 아노미의 이론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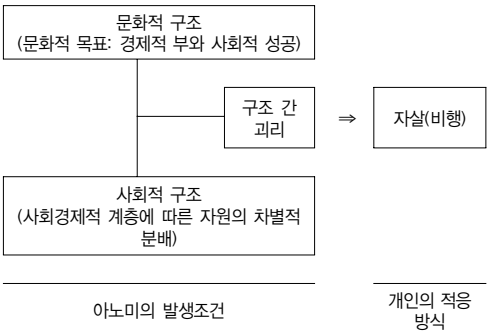


**그림 1. Merton의 아노미 이론 모형**

한편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1992년 Agnew에 의해서

1 거시적 차원의 아미노 이론과 미시적 차원의 일반긴장이론 즉, 두 이론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배경이론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살생각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자살생각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원인에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erton이 제시한 자살의 원인이 구조간 괴리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강조하였고, Agnew는 Merton의 이론적 기반하에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차원에서 개인은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자살을 선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Merton과 Agnew의 이론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Merton이 제시한 불평등한 사회구조하에서 개인은 어떠한 긴장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가가 Agnew의 이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소득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변인과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이라는 미시적 변인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적, 미시적 이론이라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을 사용하였다.

소개되었다[27]. 하지만,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Agnew의 일반 긴장이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기회를 제한시키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개인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개인의 비행이 불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긴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29]. 즉 [그림 2]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은 목표달성(재산과 지위에 대한 목표)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가족의 사망, 가치 있는 소유물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발생(언어 및 신체적 학대 등)에 따라서 긴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긴장을 느낀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개인들은 긴장을 대처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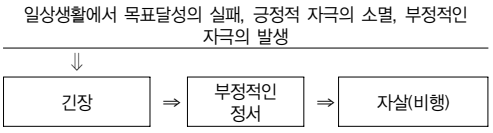


**그림 2. Agnew의 일반긴장이론 모형**

이들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Agnew의 일반긴장 이론을 통해서 노인 자살을 이해하면 경제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로 파생되는 소득불평등이 노인에게 긴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은 자살을 선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노인의 긴장 즉,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2.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

자살은 죽음에 이른다고 기대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52]. 이러한 자살은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 중 노년층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10세-19세 5.2명, 20세-29세 24.4명, 30세-39세 29.6명, 40세-49세 34.1명, 50세-59세 40.1명, 60세-69세 52.7명, 70세-79세 83.5세, 80세 이상 123.3명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24]. 또한 노인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OECD 국가의 경우 자살률이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65세~69세 연령대는 40.4명에서 58.1명으로 70세~74세 연령대는 48.8명에서 68.8명으로 큰 폭의 증가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노인자살을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행위인 자살은 자살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réville, Hébert, Boyer, Bravo, and Seguin(2005: 597)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자의 4.2%가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7].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약 160만 5천명 대상) 예산이 약 2조 4,460억원이고, 노인복지 예산이 약 3조 6,47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살의 심각성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16].

이러한 노인자살의 심각성 때문에 학계에서는 노인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관련 연구는 연구대상인 자살자가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살 대체변수로 자살생각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3]. 실제 자살생각은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배진희, 엄기욱(2009: 1435)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15.6%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고[12], Suominen, Isometsä, Suokas, Haukka, Achte, and Lönnqvist(2004: 536)의 연구에서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35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시도자 중 13.3%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2]. 이처럼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자살시도가 자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의 자살생각이 자살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자

살을 자살생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노인자살과 마찬가지로 노인 자살생각도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표, 최순호(2011: 26)는 2009년 현재 19세-29세 15%, 30세-39세 13%, 40세-49세 14%, 50세-59세 17%, 60세-69세 19%, 70세 이상 31%로 노인의 자살생각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24].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은 65세 이상 남성노인 31.07%, 여성노인 56.20%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시도율은 남성노인 4.24%, 여성노인 1.26%로 확인되었고, 실제 자살률에서도 남성노인은 인구 10만명당 65세~74세가 143.1명, 75세 이상이 209.2명인 반면 여성노인은 65세~74세 43.6명, 70세 이상이 7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적지만,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실제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자살 시도 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불평등은 희소자원의 소유 정도에 따라 개인이 위계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되고, 이러한 희소자원의 분배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소수의 사람들에 독점되는 현상이다[30] .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의 분배가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화폐적 이익을 경험하지만, 반면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화폐적 불이익을 겪게된다[32]. 이러한 맥락에서 OECD(2011: 66)는 소득불평등을 소득(물질적 자원)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개념화하였다[51].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년층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경로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누적되므로, 노년기에 소득불평등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34]. 실제 OECD(2010)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인구집단의 지니계수의 경우 0.300으로 OECD 평균인 0.311보다 작지만,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0.405로 OECD 평균인 0.299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인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살과 자살생각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불평등이 노인의 자살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소득불평등과 노인의 자살생각 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계층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생활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기회는 집단이나 위계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기대되는 화폐적·비화폐적 이익을 의미하고[59], 생활기회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상태가 결정된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건강 등과 관련된 불평등을 발생시킨다[6]. Payne and Askeland(2008: 47)도 소득불평등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하였고[55], Hildebrand, and Vand(2009: 818)의 연구에서는 유럽 11개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9]. 또한 Zheng and George(2009: 29-32)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고하였다[65]. 이처럼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인이 생활기회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자살을 증가시킨다. Shah and Bhandarkar(2011: 26)는 남성과 여성 인구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지니계수만이 자살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1]. 그리고 1991년에서 1992년까지의 International Social Justice Project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자살률의 관계를 조사한 Fernquist(2003: 70)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살률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7].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자살 간 관계를 통해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경험하는 소득하위계층 노인은 상위계층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기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의 유의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지하고 있는데, Hong, Knapp and McGuire(2011: 40)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면 자살생각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0]. 이처럼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4.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관계

불평등은 화폐·비화폐적 자원을 일부집단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분배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다[43].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이 일부집단에 분포되어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격차는 소득에 따른 계층화로 연결된다[66]. 또한 소득하위계층에 위치한 노인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 즉, 화폐·비화폐적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다. 이러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일차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의 재무의 변화의 결과로써,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곤궁(hardship), 압력(pressure), 부담감 (strain)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70].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기적인 일자리의 부족 상태라면, 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성을 의미한다[58]. 특히, 객관적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자료에 접근성이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제적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한 박혜성(2007: 74-8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이 인지하는 소득・지출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이상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11]. 실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의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Marks(2005: 57-58)는 소득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깊다고 지적하였고[45], Boushey and Weller(2006: 21)는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경제적 압박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1].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인 경제적 궁핍, 경제적 부담, 경제적 압박 등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지지하고 있는데, CPPR(2005: 13)에 따르면 경제적 궁핍이 경제적 압력을 유발하여 부모의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33]. 그리고 221명의 저소득 가족을 조사한 Prawitz, Kalkowski and Cohart (2013: 29)는 경제적 압박이 높을수록 고통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56]. 박혜성(2007: 107)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인 소득, 지출 스트레스가 우울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11]. 이처럼 선행연구들도 일관되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단순히 노인의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의 이전단계인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인 경제적 궁핍, 경제적 긴장, 경제적 압박, 재정적 긴장 등을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증가된 정신적 취약성은 결국 자살생각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를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Yoder and Hoyt(2005: 262)는 가족의 경제적 압박이 우울감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63]. 또한 Meltzer, Bebbington, Brugha1, Jenkins, McManus and Dennis(2010: 785)는 재정적 위기, 이혼 또는 깨진 관계(broken relationship)로 인한 물질적 궁핍이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47]. Economou, Madianos, Peppou, Theleritis, Patelakis and Stefanis(2013: 57)의 연구에서는 그리스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재정적 긴장을 경험한 사람의 자살생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6].

한편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관계를 살펴보면, 상기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의 유의성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개효과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의 유의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Houdmont and Leka(2010: 3)는 경제관련 변수와 건강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있다고 지적하였다[41]. 특히 이소정(2010: 5)은 거시경제 지표인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취약성이 미시적 지표인

자살을 연결시키는 지점에 경제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19].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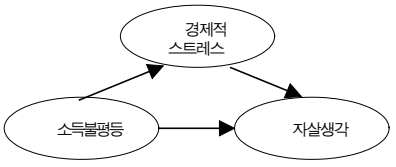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 2. 연구대상과 조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먼저 자살생각 문항이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과정을 거쳤다(IRB No : JBNU 2014-03-005-001).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성별로 층화한 후, 44개의 집단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층에 대한 표본 추출은 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조사목적에 동의한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541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자료는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9월까지 총 14일에 거쳐 수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PASW, ver 17.0)를 활용하여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쳤고,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죽음에 이른다고 기대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오인근(2007: 26)이 SSI 척도를 수정 보완한 한국판 SSI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SI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는 0점에서 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없는 노인은 대답하기 어려운 2문항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고, 수정이 어려운 3문항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2문항을 삭제하여 총 14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울러 일부 긍정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75로 보고되었다.

#### 2) 소득불평등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소득의 분배가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Ohtake(2004: 11)의 인지된 소득불평등 문항을 이용하였다. 인지된 소득불평등 문항은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 문항이고,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54].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노인들이 소득불평등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여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부자들은 더 잘 살고, 어르신은 더 가난해 지는 것)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3) 경제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본인이 인지한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Mistry, Benner, Tan and Kim(2009: 282)의 경제적 부담감(economic strain)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문항은 “당신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 보면, 청구된 금액을 납부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를 묻는 단일 문항이고,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50].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청구된 금액이 모호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청구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당신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 보면, 청구된 금액(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을 납부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68][69]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통제변수는 명목변수의 경우 회귀식에 투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이상 1, 무학 0, 배우자는 유배우자 1, 무배우자 0 으로 부호화하여 dummy 변수로 처리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335명(61.9%)으로 남성 206명(38.1%)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대는 76.75세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70대 268명(49.5%), 80대 188명(34.8%), 60대 85명(15.7%)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이상이 320명(59.1%)으로 무학 221명(40.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무배우자는 308명(56.9%)인 반면 유배우자는 233명(43.1%)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 | 빈도(%) | 비고 |
|---|---|---|---|
| 성별 | 남성<br>여성 | 206(38.1)<br>335(61.9) | |
| 연령 | 60대<br>70대<br>80대 | 85(15.7)<br>268(49.5)<br>188(34.8) | Mean(SD)<br>76.75(6.48)) |
| 교육수준 | 무학<br>초등학교 이상 | 221(40.9)<br>320(59.1) | |
| 배우자유무 | 무배우자<br>유배우자 | 308(56.9)<br>233(43.1) | |

### 2.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검토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소득불평등은 4.40점(SD .77)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3.70점(SD 1.08)으로 확인되었고, 자살생각은 점수범위 0점에서 2점 사이에서 0.31점(SD .31)으로 보고되었다.

**표 2. 주요변수들의 특성**

| 구분 | 점수범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소득불평등 | 1점-5점 | 2점 | 5점 | 4.40점 | .77점 |
| 경제적 스트레스 | 1점-5점 | 1점 | 5점 | 3.70점 | 1.08점 |
| 자살생각 | 0점-2점 | 0점 | 1.54점 | .31점 | .31점 |

### 3.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절대값으로 .002 ~ .31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변수들의 상관 행렬**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①성별 | - | | | | | |
| ②연령 | .038 | - | | | | |
| ③학력수준 | .313*** | -.140* | - | | | |
| ④배우자 유무 | -.121* | .030 | .078 | - | | |
| ⑤소득불평등 | .002 | -.216*** | .170** | .021 | - | |
| ⑥경제적 스트레스 | -.066 | .022 | -.021 | .022 | .125* | - |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배우자)

## 4.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단계를 따랐다[28].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세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부분매개효과라 한다. 이에 반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의미한다[28]. 이와 더불어 Sobel-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에 대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표 4][표 5][표 6]의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공차한계(Tolerance Value)를 진단한 결과, 분산 팽창계수는 10 이하이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 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자살생각의 변량(variance)을 8.5%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에 대해 연령, 학력수준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이 인지된 소득불평등 변수를 투입한 결과,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0.6%로 <모형 Ⅰ>에 비해 2.1%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해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은 β = .155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표 4.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 단계 | 자살생각 | | | | | |
|---|---|---|---|---|---|---|
| | 모형 Ⅰ | | | 모형 Ⅱ | | |
| | B | S.E | β | B | S.E | β |
| 성별 | −.028 | .029 | −.043 | −.034 | .029 | −.053 |
| 연령 | .011 | .002 | .221*** | .011 | .002 | .225*** |
| 학력수준 | −.067 | .029 | −.105* | −.055 | .029 | −.086 |
| 배우자 유무 | −.021 | .030 | −.032 | .005 | .031 | .007 |
| 소득불평등 | | | | .063 | .017 | .155*** |
| Model Fit | 상수= −.465<br>$R^2$= .092<br>adj. $R^2$=.085<br>F=13.528*** | | | 상수= −.776<br>$R^2$= .114<br>adj. $R^2$= .106<br>F=13.735*** | | |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배우자)

### 2)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형 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변량(variance)을 1.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 변수를 투입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4.2%로 <모형 Ⅰ>에 비해 4.04%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소득불평등은 β = .17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간 관계**

| 단계 | 경제적 스트레스 | | | | | |
|---|---|---|---|---|---|---|
| | 모형 Ⅰ | | | 모형 Ⅱ | | |
| | B | S.E | β | B | S.E | β |
| 성별 | −.085 | .103 | −.038 | −.110 | .102 | −.049 |
| 연령 | .007 | .008 | .043 | .008 | .008 | .048 |
| 학력수준 | −.284 | .104 | −.130** | −.238 | .103 | −.109* |
| 배우자 유무 | .083 | .107 | .038 | .180 | .109 | .082 |
| 소득불평등 | | | | .239 | .062 | .171*** |
| Model Fit | 상수= 3.248<br>$R^2$= .024<br>adj. $R^2$=.016<br>F=3.249*** | | | 상수= 2.071<br>$R^2$= 5.0<br>adj. $R^2$= 4.2<br>F=5.672*** | | |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배우자)

### 3) 자살생각에 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모형 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배우자 유무)은 자살생각의 변량(variance)을 8.5%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수준 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둘째 <모형 Ⅱ>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 변수를 투입한 결과,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4.5%로 <모형 Ⅰ>에 비해 6.0%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해서 경제적 스트레스 $\beta$ = .206, 소득불평등 $\beta$ = .120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

| 단계 | 자살생각 | | | | | |
|---|---|---|---|---|---|---|
| | 모형 Ⅰ | | | 모형 Ⅱ | | |
| | B | S.E | β | B | S.E | β |
| 성별 | -.028 | .029 | -.043 | -.028 | .028 | -.043 |
| 연령 | .011 | .002 | .221*** | .010 | .002 | .215*** |
| 학력수준 | -.067 | .029 | -.105* | -.040 | .028 | -.064 |
| 배우자 유무 | -.021 | .030 | -.032 | -.006 | .030 | -.009 |
| 소득불평등 | | | | .049 | .017 | .120** |
| 경제적 스트레스 | | | | .060 | .012 | .206*** |
| Model Fit | 상수= -.465<br>$R^2$= .092<br>adj. $R^2$=.085<br>F=13.528*** | | | 상수= -.900<br>$R^2$= .154<br>adj. $R^2$= .145<br>F=16.187*** | | |

*p< .05, **p< .01, ***p< .001
주) 더미 : 성별(1=남성), 학력수준(1=초등학교 이상), 배우자 유무(1=유배우자)

## 5.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 1)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단계를 따랐다[28].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그림 5][그림 6]과 같다.

먼저 1단계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자살생각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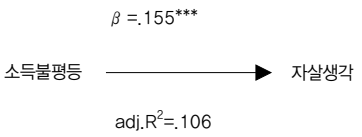


**그림 4. 1단계 검증결과**

그리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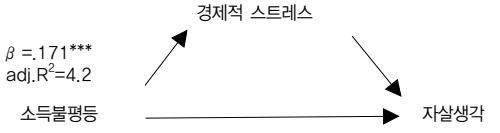


**그림 5. 2단계 검증결과**

마지막으로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살생각에 대해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한 수준에서 ß계수의 크기가 작아질 때에는 부분매개가 성립된다. 소득불평등 → 경제적 스트레스 → 자살생각의 경로의 유의성이 발견되었고, 특히 [그림 6]의 소득불평등 → 자살생각 간 관계의 영향력이 $\beta$=.120으로 [그림 4]의 소득불평등 → 자살생각 간 관계의 영향력 $\beta$=.155 보다 작아,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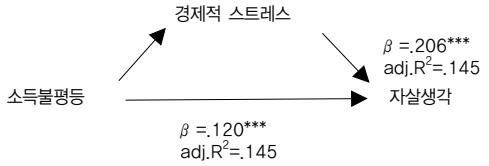


**그림 6. 3단계 검증결과**

### 2)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통계량 Z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mathrm{SE}_a^2) + (a^2\mathrm{SE}_b^2)}}$$

상기 제시된 Sobel의 통계량 Z의 공식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Sobel-Test에 의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결과**

| 경로 | Z | P |
|---|---|---|
| 소득불평등 → 경제적 스트레스 → 자살생각 | 3.053 | 0.00 |

간접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해서 $H_0$: αβ=0 이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한 뒤, z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8]. 따라서 Z값이 3.053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목적은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직접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40]와 일치한다. 둘째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매개효과 있다는 선행연구[45][31][63][47][36]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인의 근로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시장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노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또는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성숙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비율)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46][66] 고려한다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으로 노인의 절대적 빈곤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인 전라남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으로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파악

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45][31][63][47][36]. 이는 소득하위계층에 위치한 노인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 즉, 절대적·상대적 빈곤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일차적 스트레스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된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높이고, 결과적으로 높아진 노인의 정신적 취약성 문제는 자살생각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는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소득하위계층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인 경제적 부담감이 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중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 선정에서 탈락한 노인의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과금, 세금, 임대료, 이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 노인의 빈곤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지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수렴하는 소득불평등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세금을 활용하거나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법이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복지확대라는 '복지 논쟁'에서 친복지 진영의 유용한 복지확대 논리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단선적인 관계에 초점을 주었다면,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 세 변인의 관계를 구체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보다 풍부한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체계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변인이 투입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단일문항인 경제적 궁핍 변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과 확보된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소득불평등, 경제적 부담감, 자살생각 변인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노인이 인지하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향성은 이해할 있지만,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소득불평등,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 변인을 이용한 연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이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한정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표집이 필요하다.

하는 출처가 다양화 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가하여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전라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5년 133,143명에서 2012년 87,670명으로 37.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복지사각지대 노인이 양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어야 복지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OECD, *한눈에 보는 사회상(相) 2014, 주요 내용: 한국 OECD 사회지표*, 2014.

[2] 강영주, 정광호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4호, pp.265-291, 2012.

[3]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2권, pp.419-446, 2011.

[4] 김기원, 김한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인구학, 제34권, 제3호, pp.31-54, 2011.

[5] 김승용,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181-205, 2004.

[6] 김영기, 박재규, "직업과 생활기회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0권, 제1호, pp.129-159, 1997.

[8]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9] 노용환, 이상영,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00권, pp.7-18, 2013.

[10] 민문홍, "한국사회의 자살급증문제에 관한 사회문화적 진단", 생명연구, 제11권, pp.1-23, 2009.

[11] 박혜성,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2] 배진희, 엄기욱, "노인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427-1444, 2009.

[1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2.

[14]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38권, 제4호, pp.33-71, 2004.

[15] 오인근, *노인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 분석: 저소득지역의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 원시연,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1.

[17] 윤우석,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 검증: 1995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 분석",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42권, pp.153-185, 2011.

[18] 윤채린,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주중심주의 모델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체와 이해관계: 이사회 참여의 역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9] 이소정,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1-19, 2010.

[20] 이원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pp.163-188, 2012.

[21] 장영식,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165권, 2012.

[22] 장지연, 신동균,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pp.1-21, 2010.

[23]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인세대 소득불평등과 해소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2011.

[24] 홍진표, 최순호, *대한민국 자살현황 연간보고서*, 서울: 한국자살예방협회, 2011.

[68] 김현경, 고성희, 정승희, "노인의 자살 생각과 위험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82-92, 2010.

[25] R. Agnew, "The approval of suicide: A social-psychological model,"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8, No.2, pp.205-225, 1998.

[26] R. Agnew, "Strain Theory". 332-339, in Encyclopedia of social problems, edited by Parrillo, V. N., London: Sage Publications, 2008.

[27] R. Agnew, T. Brezina, J. P. Wright, and F. T. "Cullen,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40, No.1, pp.43-71, 2002.

[2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29] S. W. Baron, "Street youth, strain theory, and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34, pp.209-223, 2006.

[30] W. Bottero, *Stratification: Social Division and Inequality*. London: Routledge, 2005.

[31] H. Boushey and C. E. Weller, "Inequality and Household Economic Hardshi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A Working paper, Vol.18, 2006.

[32] J. M. Charon, *Ten Questions: A Sociological Perspective(8th ed)*.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3.

[33] CPPR, *The Effects of Poverty and Economic Hardship across Generations,* California: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05.

[34] D. Dannefer,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8, No.6, pp.327-337, 2003.

[35] S. H. Danziger, and R. H. Haveman "Understanding Pover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36] M. Economou, M. Madianos, L. E. Peppou, C. Theleritis, A. Patelakis and C. Stefanis, "Suicidal ideation and reported suicide attempts in Greece during the economic crisis," World Psychiatry, Vol.12, No.1, pp.53-59, 2013.

[37] R. M. Fernquist,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suicide rates in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western countries, 1990-1993," Death Studies, Vol.27, No.1, pp.63-80, 2003.

[38] E. Garfield. "The Anomie-Deviant Behavior Connection: The Theories of Durkheim, Merton, and Srole. Essays of an Information Scientist," Vol.10, No.39, 272-281, 1987.

[39] V. Hildebrand and P. Van Kerm, "Income Inequalit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Demography, Vol.46, No.4, pp.805-825, 2009.

[40] J. Hong, M. Knapp and A. McGuire,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ur: a 10-year trend following economic crisis. World Psychiatry," Vol.10, pp.40-44, 2011.

[41] J. Houdmont and S. Leka, *Contemporary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Global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practice,* West Sussex: John Wiley & Sones Ltd, 2010.

[42] C. Hwei-Lin and H. Wei-Chiao, "A Re-Examination of the Suicide Rates in Taiwa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83, No.3, pp.465-485, 2007.

[43] J. Kelley and H. S. Klein, *Revolution and the Rebirth of Inequality: A Theory Applied to the National Revolution in boliv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44] M. Maguire, R. Morgan and R. Reiner,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6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5] G. N. Marks, *Income Poverty, Subjective Poverty and Financial Stress,*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2005.

[46] A. McKay, "Inequality Briefing," Briefing Paper 1, pp.1-6, 2002.

[47] H. Meltzer, P. Bebbington, T. Brugha1, R. Jenkins, S. McManus and M. S. Dennis, "Personal debt and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Medicine, Vol.41, No.4, pp.771-778, 2010.

[48] S. F. Messener and R. R. Rosenfeld,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 Macro-sociological explanation of crime* in Krohn, M. D., Lizotte, A. J. and Hall, G. P. (2009).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New York: Springer, 2009.

[49] J. R. Miller, T. M. Piper, J. Ahern, M. Tracy, K. J. Tardiff, D. Vlahov, and S. Galea, "Income Inequality and risk of suicide in new york city neighborhoods: a multilevel case-control strudy. Suicide Life Threat Behav," Vol.35, No.4,

pp.448-59, 2005.

[50] R. S. Mistry, A. D. Benner, C. S. Tan, and S. Y. Kim, "Family economic stress and academic well-being among Chinese-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adolescents's perceptions of economic strai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3, No.3, pp.279-290, 2009.

[51] OECD, *Suicide, in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11a.

[52]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011b.

[5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2013.

[54] Ohtake, F. *Happiness and Income Inequality in Japan*, 2004.

[55] Payne, M. and Askeland, G. A.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al work: postmodern change and challenge,* London: Ashgate, 2008.

[56] A. D. Prawitz, J. C. Kalkowski, and J. Cohart, "Resonse to economic pressure by low-income families: financial distress and hopefulness," journal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34, No.1, pp.29-40, 2013.

[57] M. Préville, R. Hébert, R. Boyer, G. Bravo, and M. Seguin, "Physical health and mental disorder in elderly suicide: A case-control study," Aging & Mental Health, Vol.9, No.6, pp.576-584, 2005.

[58] S. J. Price, C. Price, P. C. McKenry, *Families &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2010.

[59] F. Rauschmayer, I. Omann, and J. fruhmann, *Sustainable Development: Capabilities, needs, and well-being*, New York: Routledge, 2011.

[60] E. Rubington and M. S. Weinberg,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Seven Perspectives(6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1] A. Shah and R. Bhandarkar, "Does adversity early in life affect general population suicide rate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Injury & Violence Research, Vol.3, No.1, pp.25-27, 2011.

[62] K. Suominen, E. Isometsä, J. Suokas, J. Haukka, K. Achte and J. Lönnqvist, *Completed Suicide After a Suicide Attempt: A 37-Year Follow-Up Study,* Am J Psychiatry, Vol.161, pp.563-564, 2004.

[63] K. A. Yoder and D. R. Hoyt,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ociology Department, Faculty Pulications, 2005.

[64] J. Zhang and D. Lester, *Psychological Tensions Found in Suicide Notes: A Test for the Strain Theory of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2, pp.67-73, 2008.

[65] H. Zheng and L. George, "Rising U.S. Income Inequality and Changing Gradient of Socioeconomic Status on Health, 1985-2005,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9 Annual Meeting, pp.1-42, 2009.

[66] F. Glenn, *The New Geography of Global Income Inequality,* Cambridge: arvard Colle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67] World News, Suicide is on the rise among South Korea's elderly, 2012년 11월 24일~25일, 2012.

[69] L. Ayalon, S. Mackin, P. A. Arean, H. Chen and E. C. McDonel Herr, "The Role of Cognitive Functioning and Distress in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Journal compilation, Vol.55, No.7, pp.1090-1094, 2007.

[70] S. Rashmita, R. S. Mistry, E. D. Lowe, A. D. Benner, and N. Chien,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sights from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0, No.1, pp.196-209, 2008.

## 저 자 소 개


**김 신 열(Shin-Yeol Kim)** 정회원

- 1996년 12월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사회사업 석사)
- 2002년 12월 : Louisiana State University in Baton Rouge(사회사업 박사)
- 현재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최 정 민(Jung-Min Choi)** 정회원

- 2003년 2월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 2009년 2월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4년 9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현재 :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노인복지